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 모두 말씀

2018.1.18.(목) 14:00~15:00

신용회복위원회 11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협회장 여러분들과  
상호금융중앙회 이사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문창용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취약차주 등 그간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더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II.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오늘 발표되는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은  
금융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p 상승할 때,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은 9.2조원,  
원리금상환부담(DSR)은 1.5%p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번 연체에 빠지면  
높은 연체이자 부담으로  
빠른 시일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만에 원금의 1/4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되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기준(65,632명, '16년)

또한, 가정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살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안타까운 사연처럼  
과도한 연체부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연체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과도하게 높은  
현행 연체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연체금리가 인하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연간 5.3조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를 통해  
연체이자 증가 속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여  
차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담보주택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차주의 연체정보가 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에 따른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그 동안 당연시되던  
채권금융회사 위주의 업무 처리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체금리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담보대출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여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주의 상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갈 때에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Ⅲ. 마무리 말씀

---

실무진들이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이번 대책만을 기다리며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  
빨리 시행해 달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업권별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들이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전환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금상환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에  
과거와 같은 비용, 수익 차원의 접근이 아닌,

동반자적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안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제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사람 중심의 경제”란  
어느 한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쉽게 포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모두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